

네비게이션 찍고, 사찰 축제로 가면 행복이 보인다

나들이하기 좋은 가을이다. 이맘 때면 전국 사찰에서는 산사음악회, 영산재, 괘불탱화 등 다양한 불교콘텐츠를 소재로 문화축제를 연다. 각지에서 열리는 축제 소식을 모았다.

이어나 기자 oasis1983@hanmail.net

강화 전등사, 영산재·글쓰기 대회 등

현존하는 최고(最古) 사찰인 강화 전등사(주지 승석)에 들어서려면 성(城)을 지나야 한다. 단군의 아들인 부소, 부우, 부여가 쌓았다고 전해지는 삼랑성(三郎城)은 단군신화를 연원으로 우리민족의 국토수호의지를 드높인 곳이다. 고려시대에는 몽고항쟁의 중심지였고, 병인양요 당시에는 프랑스군을 격전 끝에 물리친 민족자존의 현장이다.

이런 역사적 장소에 위치한 전등사는 한국의 예술·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를 10월 8~16일 개최한다. 올해 11회를 맞는 이번 축제는 삼랑성의 역사·문화적 중요성을 재조명하며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 해군이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 반환 추구를 위해 시작됐다.

이번 축제는 '역사의 울림, 어울림'이라는 주제에 맞춰 역사와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8일 오후 7시 전등사 특별무대에서 열리는 가을음악회에는 가수 김종서 박미경 정태춘 김수희 남성중창단 '비바보체' 팝페라 가수 한가영 박준서 인천시립무용단 퓨전국악그룹 '헤이아' 등이 출연한다.

9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아도 화상 등 전등사를 창건한 역대조사들을 기리는 다례제가 열린다. 오후 1시에는 호국영령을 위한 '영산대제'가 열린다. 전

등사 영산대제는 고려 원종 임금 행차 재현식을 비롯해 춤과 음악이 어우러진 공연형태의 장엄의식이 특징이다.

다양한 전시·체험행사도 마련된다. 행사기간 동안 '세계 민속악기전', 인천시의 시조(市鳥)인 두루미 사진을 전시한 '두루미 사진전', 한국 중견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울림, 어울림전', 옛 기와에 전등사 전각의 탕화, 단청, 문양을 그린 그림을 전시하는 '고기과 그림전' 등의 전시회가 열린다.

이 밖에도 천연염색 도자기물레 짚풀공예 화문석공예 칼라믹스 단청 목공예 등 각 종 문화체험행사와 먹거리 및 특산물 장터도 열린다.

8일에는 전국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미술실기 대회 및 글쓰기 대회를 개최한다. 15일에는 모듬북 화관부 요들송 가야금 설장구 은울탈춤 등 인천·강화 지역 초등학교 및 문화 활동단체가 공연을 펼친다.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조직위원장 승석 스님은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는 우리역사와 함께 한 강화, 삼랑성, 전등사를 주제로 하는 축제인 인천시를 대표하는 민간 축제로 성장했다"며 "은 가족이 와서 공연과 체험, 전시와 자연을 만끽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32)937-0125

해남 미항사, 통도사 博은 괘불탱화전

해남 땅끝 마을 미항사(주지 금강)는 8일 오후 1시 제12회 괘불제와 미항사 음악회'를 개최한다.

보물 제1342호로 지정된 괘불탱화를 모시고 있는 미항사는 매년 불교회화·음악·음식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불교종합예술제를 열고 있다.

미항사는 '미항사의 농사'를 주제로 20여 년 전부터 전담지역에 시작된 귀농 및 친환경 농가를 초대해 만물공양과 농산물전시, 농부들과 대화마당, 음악회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미항사 괘불제



전등사 영산대제 시연 모습

전등사, 다례제·영산재·글쓰기대회 등 다채

미항사·통도사 博, 괘불탱화 선보여

봉녕사, 사찰음식 대향연

오후 1시 시작되는 괘불제는 높이 12m, 폭5m인 대형 괘불탱화를 1년에 한번 공개하는 날이다. 괘불제에서는 전통방식으로 불단을 차리고 괘불탱화를 이운해 미항사 마당에 전시한 뒤, 참석 대중들이 1년간 마음을 모아 지은 농작물을 올린다.

오후 6시에는 전국 산사음악회의 시조이기도 한 미항사 음악회가 열린다. 남도의 들노래를 부르는 소리꾼들이 모심기 소리 귀농팬지 농사꾼의 노래 판소리 '심청가' 등을 노래하며 전통 줄타리기와 강강

술래를 선보인다. 농민들과 미항사 방문객들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두레상 한 술밥', 미항사 역사길 걷기, 해남 규방공예연구회의 조각보 전시인 '가을 나들이전', 해남 지역 유기농 특산물 판매장도 눈길을 끈다. 미항사 주지 금강 스님은 "이번 축제는 지역민이 주인공이 돼 타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역민이 들러리가 돼버리는 다른 축제들에 비해 새로운 문화축제의 형태를 갖는다"고 말했다. (061)533-3521

수원 봉녕사는 사찰음식 대향연 열어

통도사(주지 원산) 성보박물관(관장 지준)은 5일부터 1층 중앙괘불전에서 '통도사 괘불탱 특별전'을 연다. 매년 2회 특별전을 개최해 온 성보박물관은 제25

회 특별전에서는 범주사 말사 청주 보살사의 괘불탱을 전시한다.

보살사 괘불은 국내에서 전하는 불화 중 4번째로 이른 시기인 1649년에 제작된 작품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97년 8월 보물 제1258호로 지정됐다. 이 그림은 석가모니불이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장면을 묘사한 영산회상도로, 크기는 세로 530cm, 가로 401cm이며 비단 바탕에 안료를 배운 작품이다.

수원 봉녕사(주지 묘연)는 8~9일 '제3회 사찰음식 대향연'을 개최한다. 봉녕사는 행사기간에 당일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찰음식 경연대회를 진행한다. 또한 여섯 마당을 주제로 >선재·적문·우관·정관 스님의 사찰음식 강의 >스님들의 탁발순례 >사찰음식 경연마당 >대가 스님들 일품요리 시연마당 >육림공양마당 >사찰음식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031)256-4127

타고르는 왜 붓을 들었을까

국박, 11월 27일까지 타고르전

'인도의 시성' '동방의 등불'로 잘 알려진 라빈 드라나트 타고르(1861~1941)는 시집 <기탄잘리>를 통해 1913년 동양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를 시인으로만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타고르는 시, 소설 뿐만 아니라 연극 음악 무용 회화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중요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다. 회화는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대한민국-인도 우정의 해를 기념해 '타고르의 회화 - The Last Harvest'전을 11월 27일까지 개최한다. 전시회에서는 타고르의 회화작품 49점 및 타고르 관련 서적이 선보인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타고르

삶의 마지막은 회화에 천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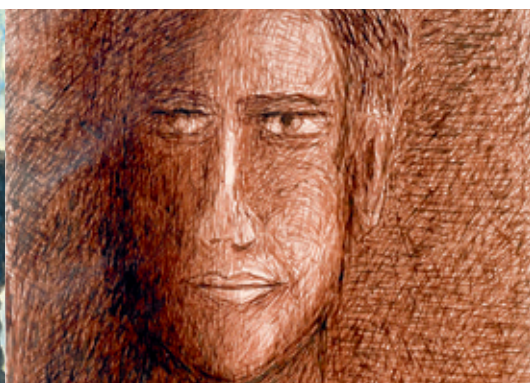
49점의 회화작품 선보여

타고르는 생의 마지막 예술분야로 회화에 천착했고 그의 사상이 잘 표현돼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회화는 그에게 '삶의 마지막 수확(The Last Harvest)'라고 할 수 있다.

전문 미술교육을 받지 않았던 타고르는 동양미술, 원시미술과 현대미술 사조의 흐름을 접하고 화가로서의 자신을 발견했다. 타고르는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대상을 정하지 않고, 펜과 붓이 나오는 대로 그림을 완성했다. 많은 작품을 남겼지만 대부분



'풍경과 꽃' (중이에 유색 잉크, 1934년)



'얼굴' (중이에 펜과 잉크, 1939년)

제목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전시회 출품작 역시 제목이 없는 작품들이 많다.

이번 전시는 시기별로 그가 표현하고자 했던 대상을 기준으로 4부로 구성됐다. 1부 '상상의 동물들'에서는 현실세계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생명체를 소재로 했다. 2부 '풍경과 꽃'에서는 점차 자연의 형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타고르의 모습, 3부 '몸짓으로 이야기하는 인물과 극적인 장면'에서는 다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담긴 그

림을 볼 수 있다. 4부 '얼굴'에서는 그가 그린 다양한 초상화가 전시된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타고르의 회화는 인도 국내는 물론 서구에서도 훌륭한 평가를 받았지만, 출판물, 작품에 대한 논의가 사라지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타고르는 인도의 화가들에게 계속 영감을 주었다"고 말했다. (02)2077-9000

이어나 기자 oasis1983@hanmail.net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기도 (내려놓기) | 법륜 | 정토 |
| 2 | 우리 곁에 계신 33관세음보살 이야기 | 방경일 | 운주사 |
| 3 | 솔솔에 더 깊숙이 젖어라 (42장경) 보경 | 조계종출판사 | |
| 4 | 스님의 주례사 | 법륜 | 휴 |
| 5 | 산승불회 | 유철주 | 불광출판사 |
| 6 |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머무른 사찰음식 선재 | 불광출판사 | |
| 7 | 경전송길 (한 권으로 읽는 경전) | 정운 | 조계종출판사 |
| 8 | 명쾌한 깨달음 | 백창우 | 운주사 |
| 9 | 나는 걷는다 붓다와 함께 | 청진 | 휴 |
| 10 | 우리말 팔만대장경 (신편) | 대한불교진흥원 | 모시는사람들 |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선문염송 17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 중 17권 출간! 선(禪)을 상징하는 '떡산 방'의 주인공, 떡산선사의 공안과 동산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실증(實證)의 법문 실증실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방거사 어록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20년 오랜솜씨 탕화불상에숙원

8각좌대 청보부처님 전문염가조성

100불 · 1000불 · 10000불 · 청보도불도배

있는곳: 경북 경주시 서진동 한빛길 28번 14호
문의: 010-5595-8533
알하는곳: 054) 773-8533

2012년 불교달력 특별할인 (8월 1일 ~ 10월 30일) 판매

삼보불교카렌다에서는 「2012년 불교카렌다」를 특별할인 기간(8월 1일~10월 30일 까지)에 주문하시면 **고급스럽고, 질 높은 50여종의 카렌다를 가장 저렴하고 신속하게 보급** 해 드립니다.

※ 다양한 종류 (벽걸이, 차걸이비닐랩, 미니스프링, 미니수첩, 탁상, 법요집책자, 각종 불교용품 등)의 카렌다 내용과 이미지는 **삼보불교 카렌다 홈페이지(www.samboca.com)**에서 확인 또는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카드록**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통합검색** **삼보불교카렌다** 검색 하세요
대표전화. 031) 732-9905 | Fax. 031) 732-8972